



수입원 : DST코리아 (02)719-5757

· 가격 : 1,600만원 · 사용 유닛 : 아큐온 TSR200 · 임피던스 : 4Ω 출력음압레벨 : 99dB

· 크기(W·H·D) : 20x175x40cm · 무게 : 50kg

11월을 기억하게 하는 황홀한 음향 무대

Acuhorn RS175

성악의 고역 뺨침 역시 황홀하기만 하다. 사용 앰프는 크론질라 DM(40W)인데 EL34를 사용한 80W짜리 앰프에서도 완벽하게 반응을 한다. 이걸 플레인지 스피커의 최고봉이며 기적 같은 제품이다. 어떤 곡도 가리지 않는다. 놀랍다. 지금 이런 스피커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인가. 김남

이 제품이 집에 들어 왔을 때 아차 싶었다. 아파트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제품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 장대한 높이, 이걸 방안에 거치해놓으면 방안은 마비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걱정이 뒤따랐다. 달갑지가 않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수입상으로 가서 들을 텐데, 그러나 제품이 방안에 세워지자 또 한 번 놀랐다. 비록 키는 나보다 한 뼘 가량 크지만 그 날렵함 때문에 보통의 돌보이 제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뒷길어도 보통이다. 기이하다. 이런 기구가 방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다니. "좁은 방일수록 더 좋습니다." 수입상에서는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폴란드에 자리 잡고 있는 신진 메이커로서 플레인지 드라이버를 사용한 특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하긴 역사와 전통이 어떻다 해도 신제품 앞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생각한다. 신제품 한 기종으로 삼시간에 세계의 오디오 마니아를 사로잡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신제품이라고 하면 대강 구경을 하고 살지만 이런 특이한 스피커는 처음인 것 같다.

돌보이의 분위기라고 해도 키높이가 있는 만큼 아연 존재감이 있다. 그러나 주변은 자유롭다. 뒷길어도 보통이니만큼 방안에서도 전혀 거추장스럽지가 않다. 전면을 보면 마치 거인의 배꼽처럼 플레인지 유닛이 한 개가 달랑 매달려 있을 뿐이어서 마

치 평면형 제품의 냄새도 풍긴다.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첨단 더블 드라이버 스피커라는 명칭처럼 뒤에도 동일한 드라이버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뿔뿔이 울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의 개방된 덕트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후면 개방형 미로형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의 설계는 물론 처음이 아니다. 탄노이의 웨스트민스터도 미로형이고 영국 제 혼 제품에도 이런 설계가 있다. 덕트 바로 위에 동일한 크기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당연히 뿔뿔이 쪽의 드라이버는 지역을, 전면은 중고역을 담당한다. 덕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본다. 아주 깊어서 손이 들어가다 멈추고 만다.

용적이 있는 만큼 완전한 복잡다단한 미로형은 아닌 것 같고 간이설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이버의 재질은 특수 펄프재질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한 시간을 들여 새로 개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형상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몇 종류의 메카니컬 플레인지나 동축 유닛과 별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앙의 센터 캡이 고역을 담당하고 주변부는 그 다음 영역이다. 단 이 제품에서는 지역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후면부에 따로 있고 보니 연결 방식이 궁금해진다. 이런 식의 2발 플레인지를 각자 영역을 달리하여





파악하기 위해 맨 먼저 그라모폰 제작 베를린 필의 베토벤 '운명'을 걸어본다. 뭉개지는 합주부분이 처음부터 그대로 드러나는 곡이다. 그런데 놀랍다. 이 부분에서 생생한 해상력을 자랑하는 것 아닌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수없이 반복했지만 뭉개지는 소절이 한 순간도 없다. 잘 만든 2웨이 수준 이상인 것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경악할 만하다. 이 드라이버는 전후로 2발이나 장착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한 발인 것처럼 밸런스도 좋다. 지난 시절 사용하던 플

배치한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신선하면서도 독특한 설계인 것이다.

사용된 다른 재질들도 고가품이니만큼 예상롭지가 않다. 내부 배선제로서는 고가의 실버 골드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는데 무명의 골드선이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실텍의 G-6 선재이며 보이스 코일도 직경 180미크론의 섬세하기 짝이 없이 가는 선을 사용했다. 그 밖에 드라이버의 특징으로는 밀도가 가장 높은 TSR 네오디뮴이 사용되었고, 마그넷도 네오디뮴이다. 드라이버의 기본 설계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인 듯 자극간의 간극에 전류가 가해질 때 생기는 전기의 분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자기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엔진을 삽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클로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밋밋하지만 내막은 좀더 복잡하다. 그냥 통판을 잘라서 맞춘 것이 아니고 나무판들을 위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립시켜 마치 악기의 통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하베스 스피커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전면과 후면, 측면의 판재가 모두 두께가 다른 것이다. 이런 기법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홀로그래픽 성향에 있다고 한다. 울림이 각각 다른 음이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면서 미세하게 홀로그래픽 현상을 만들어 주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제품의 특징은 양방향으로 작동되는 침단 더블 드라이버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더블 드라이버가 들려주는 뛰어난 저주파 해상력

이 절제된 저음의 깊이감은 물론이고, 생생한 에너지감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이 메이커에서 개발한 사운드 프로세싱 기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료만으로도 이 스피커는 겉으로만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여러 노하우의 덩어리로 판단이 된다.

필자는 플레인지 스피커를 수년간 사용해왔다. 스피커 중의 스피커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서슴없이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내악이나 성악에서는 현존하는 어떤 스타일보다도 플레인지가 특출하다. 가수나 연주자의 침 삼키는 소리, 악기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의 민감한 반응에 한 번 빠지면 어떤 고가의 스피커도 귀 기울일 생각이 나지 않는다. 활이 현을 비빌 때 흠여지는 송진가루 같은 표현도 바로 이런 스타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적인 약점이 있다. 동축형이나 플레인지는 대편성에 취약하다. 소편성에 탁월한 만큼 당연히 약점이 있겠지만 사람은 약점을 파악하면 자꾸 그쪽만 생각하게 된다. 그런 이 짚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상당기간 사용하던 대형의 플레인지 스피커를 내보내고 말았지만 지금도 이브 몽땅의 노래 소리가 절절히 그림다. 그의 고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던가.

이 제품의 약점을

플레인지 스피커는 '운명'을 걸어놓으면 마치 풀죽같이 뭉개진 형편없는 소리가 나왔다. 알프스 교향곡의 첫 소절에서도 너무기가 막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우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생생하게 탄력이 붙으면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한다. 고역도 매끈하기 짝이 없다.

필프는 원래 가벼워 악기 및 음성의 실체감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소재이지만 가벼운 만큼 약간 들뜬 소리가 나오기 쉽고 묵직하게 가라앉혀주는 맛 또한 약간 덜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르다. 피아노 저역의 가라앉아가는 여음은 마치 웅장하게 사라지는 물결 같다.

성악의 고역 뺨침 역시 황홀하기만 하다. 사용 앰프는 크론질라 DM(40W)인데 EL34를 사용한 80W짜리 앰프에서도 완벽하게 반응을 한다. 이건 플레인지 스피커의 최고봉이며 기적 같은 제품이다. 어떤 곡도 가리지 않는다. 놀랍다. 지금 이런 스피커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인가. **A**

